

# What`s Up, OITA!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김진아 (pu101502@pref.oita.jp)

<제 42호> 2019년 11월 발행

「What`s Up, OITA!」는 세계에서 활약하고 계시는 오이타와 인연있는 여러분들께, 일본 오이타현의 ‘지금’을 전달해드립니다.

## <오이타현 소식>

### 2019 럭비 월드컵 일본대회 오이타 스타디움에서 개최



2019 럭비 월드컵 일본 대회 중 오이타에서 열리는 다섯 시합이 모두 개최되었습니다. 경기장에는 국내외 관람객 총 17만 3천명이 찾아주었으며 특히 준준결승전 두 시합은 대부분이 외국인 관람객으로 마치 외국에 있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퍼블릭 뷰잉을 위해 JR오이타역 남쪽에 마련된 팬존에는 족욕과 럭비 체험, 서도 등 문화 체험 코너를 비롯해 오이타 음식을 맛 볼 수 있는 부스가 인기를 모으며 약 11만 5천명이 방문하였습니다. 현내 관광지과 음식점에도 럭비 선수들과 해외 관광객들로 붐비며 럭비 관전과 함께 오이타의 매력도 충분히 느끼고 돌아갔으리라 생각됩니다.

## <유후시 소식>



What`s up, OITA! 한국어판 제32호(2018.11)부터 현내 각 시정촌의 소식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분고오노시에 이어 이번 호는 유후시로부터 온 소식을 전달해 드립니다.



유후인은 ‘유후다케 산’과 온천 등 풍부한 자연 환경과 긴린코 호수, 유노츠보가이도 거리 주변의 풍경을 유지하기 위한 경관 대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후인만의 운치 덕분에 국내외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와 주십니다.

유후시 관광 정보▶ <http://www.city.yufu.oita.jp/kankou/>

지난 8월, 하사마 지역에서 근무하는 베트남인 기능실습생 15명과 교류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교류회는 이문화 이해 및 지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다도를 배우고 있는 초,중학생들이 유카타 차림으로 말차와 다과를 제공하며 다도 체험을 실시했습니다. 또 상점가 안에서 진행된 교류회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함께 베트남 요리를 만들며 친목을 다졌습니다.



<유후시 종합정책과/상공관광과>

# What`s Up, OITA!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김진아 (pu101502@pref.oita.jp)

<제 42호> 2019년 11월 발행

## 오이타 100% 즐기기! 구루시마 다케히코 기념관



산에 둘러싸인 마을 구스는 일본의 안데르센으로 불린 구연동화가이자 교육자였던 '구루시마 다케히코(久留島 武彦)'의 출신지로 매년 5월 5일엔 '일본 동화제(日本童話祭)'가 열리는 동화의 마을입니다. 이곳에는 구루시마 다케히코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높이 7m, 폭 3m의 동화비(童話碑)가 세워져있는데 그 옆으로 그의 자료들을 전시해놓은 구루시마 다케히코 기념관이 있습니다.

구루시마 다케히코는 60년 가까이 어린이들에게 구연 동화를 통해 꿈과 희망을 전달해오며, 장래를 짚어질 어린이들에게 보다 좋은 문화를 선사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온 아동문화인입니다. 그의 공적을 잊지 않기 위해 지어진 이 기념관은 어린이는 물론 어른도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 즐길 수 있는 볼거리로 가득합니다.

기념관 내부는 구루시마 선생님에 대해 배우는 방, 이야기 방, 일본을 여행하는 방, 세계를 여행하는 방 등 여러 테마로 구성되어 있으며, 벽면에는 지와 단행본 표지, '지속은 힘이 된다' 명언으로 가득 메워져있습니다.

면 구성으로 눈길을 끌고 일본과 흔적도 애니메이션을 통해 맞춘 퀴즈와 배를 모티브로한 여 쉽고 재미있게 남녀노소 누 또 기념관을 방문하는 모든 직접 설명하며 안내하는 것이 직원의 설명을 들으며 한바퀴 구석 살펴보면 더 흥미롭게 전시



久留島武彦記念館

구루시마 다케히코가 쓴 이야기가 실린 잡 (繼續は力なり)' 등 구루시마가 남긴 이야기 방은 마치 책을 펼친 듯한 화 전국을 여행했던 구루시마의 활동 보여줍니다. 어린이들 눈높이에 전시 케이스 등 딱딱함을 배제하 구나 즐길 수 있는 공간입니다. 분게 학예원 등 기념관 직원들이 이 곳의 철칙이라고 합니다. 먼저 돌고나서 다시 한 번 천천히 구석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구루시마 다케히코 기념관에서는 제 9회 기획전 '한국 도예전 ~일본인이 사랑한 현대 도예의 기수들~'이 전시 중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인간 문화재 도예가를 중심으로 하는 작가 12명의 꽃병, 식기 등 작품 100점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기획은 기념관 개관 당초부터 계획해두었던 전시로 오래전부터 한국과 일본이 이어져 온 것을 보여주는 매개체인 도예의 역사를 소개하고싶으셨던 관장님의 뜻으로 실현되었다고 합니다. 신사임당의 초충도를 배경으로 인간문화재 해강 류근형의 고려청자 등 일본에서 익숙한 작품을 볼 수 있어 더욱 반가운 기분이 듭니다.

기획전 기간 ▶ 2019년 10월 8일 ~ 2020년 2월 2일 (월요일 휴무)  
입 장 료 ▶ 어른 300엔 (마을 주민 150엔) / 고등학생 이하 무료



# What`s Up, OITA!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김진아 (pu101502@pref.oita.jp)

<제 42호> 2019년 11월 발행

## 오이타 속 한국인을 만나다! 구루시마 타케히코 기념관 김성연 관장



기념관의 전시 내용, 자료 수집, 포스터 작성 등 전반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계시는 구루시마 다케히코 기념관 관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루시마 다케히코 기념관 관장 김성연입니다.

저는 규슈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준비하면서 지도 교수님께 건네받은 '구루시마 다케히코 추모집'을 통해 처음 구루시마 선생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갑작스럽게 교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저는 이 책이 교수님께서 주신 숙제라 생각되어 정보를 얻기 위해 구루시마 선생님의 고향인 구스정을 찾았습니다. 그 당시엔 기념관이 창고처럼 어둡고 열악했고

자료도 제대로 정돈되어있지 않았는데 그 때 지역 주민께서 구루시마 선생님이 어린이들에게 동화를 들려주는 활동을 시작

년을 기념해 세워진 동화비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 비석 선생님의 동화를 들은 아이들이 이름과 꿈을 적어 보낸 작은 돌 4만개

한지 50주 아래에는 전국에서

가 묻혀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대단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후 각종 자료를 모으고 연구를 한 끝에 3년 반만에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하게도 제가 쓴 논문이 인정을 받아 일본 청소년 문화센터에서 주관하는 '구루시마 다케히코 문화상'을 외국인 최초로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공부한 것 뿐인데 이렇게 상까지 받게되니 부끄러움이 더 크게 느껴져 제가 연구한 내용을 사회에 공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수상소감을 말했습니다. 그 이후 구스정에서 강연 의뢰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이 구루시마 다케히코에 대해 이야기하는걸 신선하게 봐주셨지만 한편으론 왜 구스정이 동화의 마을이라 불리는지, 구루시마 다케히코가 어떤 사람인지 그의 존재가 잊혀져가고 있는 모습이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동안 학교, 공민관 등 다양한 곳에서 강연을 했고 사람들도 점차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기념관 설립 서명 운동까지 생겼습니다. 인구가 적은 시골 마을에 예산도 부족한터라 기념관을 설립하려는 움직임이 보이지 않아 포기하려던 찰나, 기념관 설립 준비 기관으로서 구루시마 다케히코 연구소를 마련해주셨습니다. 저는 작지만 할 수 있는 것을 해보자는 생각에 창고 갤러리 등 제가 수집한 자료로 전시회를 열기 시작했고 그렇게 3년이 지나 2017년 4월, 드디어 동화비 옆에 구루시마 다케히코 기념관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저의 30대를 모조리 바친 기념관의 개관과 함께 초대 관장으로 취임해 현재까지 기획 자료 수집, 전시, 직원 교육 등 전반적인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명도가 낮고 교통이 불편한 탓에 무언가를 끊임없이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개관하기 전부터 3년간의 기획전을 미리 계획해두었고 사소하지만 저를 통해 한국 문화가 많이 알려지면 좋겠다는 생각에 지금 개최 중인 '한국 도예전'에 맞춰 오미자차와 약과 세트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는 구루시마 다케히코가 구스 출신임을 몰랐던 마을 주민들이 지금은 구루시마 선생님을 너무 당연하게 입에 담게 되고 떠올리게 되었다는 것을 오랫동안 이 곳에 있으면서 피부로 느낄 때가 많아서 보람을 느낍니다. 여기서 보낸 10년이란 시간이 허송세월이 아니었다는 생각을 하면 참 뿌듯하고 이 경험을 살려 더 넓은 경험을 해 보고 싶습니다.

